



▲ 민영순 〈기계인형 신부〉 1995

▶ 민영순 〈위장무늬 한복〉

인종적 민족적 차별과 자기 정체성의 혼돈을 작품화하는 한국계 미국인 작가다. 기념품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복 인형의 인사하는 행위와 환영을 뜻하는 영문자를 대비시켜 다민족 사회 미국 내에서의 소통의 문제를 다룬다.

